

영촌산업은 원불교 재가 교도들이 운영하는 (재)원불교 소유의 유일한 영리법인입니다.

설립배경

대산종사 종법사 재직시 6대기구 (교화, 교육, 자선, 훈련, 후원, 생산)를 뒷받침 하기 위한 6대기관 (대선원, 대학원, 대학교, 대농원, 대기업, 대공장)을 설립하라는 뜻을 받들어, 1993년(원기78년) 대산종법사와 인연이 깊은 교도들 중에서 사회 각계에 활동 중인 전문인들을 천거하여 대원회를 조직하였고 회원들의 정재로 영혼산업(주)을 설립하였다.

연 혁 1993년 12월 29일

영촌산업(주) 설립 (자본금 5천만원, 회원 15명)

1994년

영업개시 대표이사 박 환정(제륜) 전자기기 부품 수입 판매, 수공구 유통판매업

2003년 7월 26일

자회사 (주)대원디지털 설립 (구미, 경산공장) 삼성전자 핸드폰 협력업체 등록 (핸드폰 전자파 차단 진공코팅 사업) 자본금 49억중 2.8억원 투자 신규 주주 영입하여 주주 22명으로 확대

2013년 4월 30일

(주)대원디지털 구미공장, 경산공장 폐쇄 (핸드폰 모델 변경으로 전자파 내부 증착 공정 사양화)

2016년 4월 18일

박 태수(광철) 대표이사 변경

~ 현재

신규 사업 쌀가공 식품 제조업 준비 중 대원회 최 해춘(경철)박사 부대 사업 Y&J 와인회사 운영 중 (조지아 와인 수입 판매)

